

2020년 2월 27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밸류 완화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혼조세 코로나 19 유럽, 남미 지역으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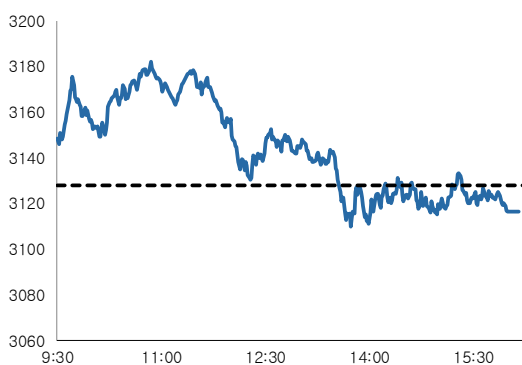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요인: 밸류 우려 완화 Vs. 코로나 19 확산

미 증시는 최근 조정에 따라 높은 밸류에이션이 일부 완화되는데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양호한 경제지표 또한 긍정적인 영향. 그러나 유럽과 남미, 중동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글로벌 확산 우려가 여전히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와 상승은 제한. 이런 가운데 오후에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며 혼조 마감(다우 -0.46%, 나스닥 +0.17%, S&P500 -0.38%, 러셀 2000 -1.22%)

최근 4 거래일만에 미 주요 지수는 6~7% 하락. 겉으로는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였으나, 그 이면에는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추정. 실제 이번 하락 이전부터 대형 기술주 및 반도체 등 그동안 미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19일 S&P500 기준 12개월 Fwd PER이 19배를 기록해 IT 버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5년 평균이 16.7배였고, 10년 평균이 15.0였던 점을 감안하면 시장은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화 과정이 필요했던 시기가 볼 수 있음.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은 하나의 빌미가 되었으며 이번 조정으로 S&P500 12m Fwd PER은 17.5배까지 완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밸류에이션 우려가 완화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양호한 경제지표라는 상승 요인에 반응을 보이며 장 초반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

물론 아직은 여전히 역사적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 미 증시가 여기에서 반등을 보일 개연성은 높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유럽과 남미, 중동 등으로 확산되고 미국내 신규 확진자 발생하자 글로벌 경기 둔화, 이로 인해 기업 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지자 재차 매물이 출회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더 나아가 이날 연준이 레포를 운용해 만기 보다 적은 금액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감소, 민주당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의 약진, 디지털세를 비롯한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 등 여러 악재성 재료가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 이러한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늘 장 특징처럼 지수보다는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76.77	-1.28	홍콩항셱	26,696.49	-0.73
KOSDAQ	654.63	-0.35	영국	7,042.47	+0.35
DOW	26,957.59	-0.46	독일	12,774.88	-0.12
NASDAQ	8,980.77	+0.17	프랑스	5,684.55	+0.09
S&P 500	3,116.39	-0.38	스페인	9,316.80	+0.71
상하이종합	2,987.93	-0.83	그리스	811.34	-2.69
일본	22,426.19	-0.79	이탈리아	23,422.54	+1.4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강세 Vs. 여행, 항공, 에너지주 부진

코로나 19가 유럽과 중동 등으로 확산되고 미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킹닷컴(-2.80%) 등 여행주, 아메리칸 에어라인(-3.50%), 델타항공(-2.56%) 등 항공 주, MGM(-4.21%), 원리조트(-2.76%) 등 리조트 카지노 등이 부진했다. 디즈니(-3.75%)는 CEO가 교체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자 급락했다. 고급 주택 건설 업체인 툴 브라더스(-14.52%)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급락했다. 주택 인테리어 업체인 로이어스(-4.38%)도 예상보다 부진한 가이드스 발표 후 하락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1.32%)는 예상과 부합된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과 공동 대표 중 하나가 사임하자 하락했다.

테슬라(-2.64%)는 파나소닉과 태양광 사업에서 결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에버코어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사업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강제 중지 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자 하락했다. 엑손모빌(-2.20%), 코노필립스(-4.94%) 등 에너지 업종은 수요 부진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한 여파로 하락했다. 반면,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애플(+1.59%), MS(+1.25%) 등 대형 기술주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했으며, 길리어드사이언스(+6.56%) 등 일부 바이오 업종은 코로나19 치료제 기대속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08%	대형 가치주 ETF(IVE)	-0.90%
에너지섹터 ETF(OIH)	-3.02%	중형 가치주 ETF(IWS)	-1.43%
소매업체 ETF(XRT)	-2.30%	소형 가치주 ETF(IWN)	-1.50%
금융섹터 ETF(XLF)	-0.73%	대형 성장주 ETF(VUG)	-0.02%
기술섹터 ETF(XLK)	+0.46%	중형 성장주 ETF(IWP)	-0.7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0%	소형 성장주 ETF(IWO)	-0.87%
인터넷업체 ETF(FDN)	-0.35%	배당주 ETF(DVY)	-0.46%
리츠업체 ETF(XLRE)	-0.8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3%
주택건설업체 ETF(XHB)	-2.4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3%
바이오섹터 ETF(IBB)	+1.34%	미국 국채 ETF(IEF)	-0.05%
헬스케어 ETF(XLV)	-0.01%	하이일드 ETF(JNK)	+0.11%
곡물 ETF(DBA)	-0.45%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0.60%	Long/short ETF(BTAL)	+0.7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58.94	-2.97%	-12.83%	-14.45%
소재	351.05	-0.34%	-7.60%	-5.38%
산업재	650.42	-0.79%	-8.19%	-6.51%
경기소비재	962.01	-0.69%	-8.23%	-2.36%
필수소비재	633.63	-0.49%	-4.29%	-2.84%
헬스케어	1,128.63	-0.10%	-6.77%	-5.15%
금융	473.01	-0.67%	-8.22%	-5.75%
IT	1,623.63	+0.40%	-9.88%	-4.60%
커뮤니케이션	178.08	-0.21%	-7.72%	-5.01%
유틸리티	340.61	-0.97%	-4.11%	-1.98%
부동산	247.45	-0.88%	-3.26%	-0.1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업종별 차별화 속 관망 장세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1% MSCI 신흥 지수 ETF 는 0.80%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887 계약 순매도한 가운데 0.80pt 하락한 279.2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12.1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19 가 한국과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과 남미, 중동 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자 미 증시는 반발 매수 유입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은 경기 둔화를 촉발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시진핑은 농업 인프라 확대를 주장하고, 독일 재무장관도 이날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언급하는 등 글로벌 각국은 적극적으로 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코로나 19 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적극적인 부양정책 발표는 우려를 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28 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추경을 논의 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국 또한 경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 지수조정엔 제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늘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정부의 추경과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상존하지만 각국 정부의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악재성 재료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어 지수 전반에 걸친 매수세 보다는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 안전자산 편입 급증

1 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70.8 만건)이나 예상(71 만건)을 크게 상회한 76.4 만건을 기록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모기지 금리 하락과 고용 안정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신규 주택 재고도 5.1 개월을 기록해 전년 동기(6.5 개월) 보다 감소했다.

2 월 스테이트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지수는 전월(75.4) 보다 개선된 77.9 를 기록했다. 기관 포트가 여전히 안전자산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월 보다 개선된 점을 감안 일부 위험자산을 편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미지역(75.4→77.9)과 유럽(105.7→111.1)은 상향 조정 됐으나 아시아(95.5→83.6)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 돼 코로나 이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10년물 미 국채금리 장중 한 때 1.30%까지 하락

국제유가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유럽과 중동 지역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미국내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여행이 감소하는 등 수요 부진 우려가 높아진 점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EIA 는 지난 주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적은 50 만 배럴 증가하고 가솔린도 27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 했으나 영향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양호한 경제지표에 기반해 강세를 보였다. 전일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코로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나 아직은 통화정책 변화가 필요한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한 점도 일부 영향을 줬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 19 가 글로벌 각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자 금리인하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며 강세는 제한되었다.

국채금리는 유럽과 중동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확산되자 장 중 한때 10년물 국채금리가 1.3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장 후반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심리로 하락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단기물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진 점이 부각되며 낙폭이 더 컸다. 한편, 5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39 배)를 상회한 2.46 배를 기록했고 간접입찰 또한 12개월 평균(59.8%)를 상회한 61.5%를 기록한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욕구가 지속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둔화 우려속 혼조 양상을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8.73	-2.34	-8.90	Dollar Index	99.113	+0.15	-0.59
브렌트유	53.43	-2.77	-9.62	EUR/USD	1.0885	+0.03	+0.74
금	1,643.10	-0.42	+1.94	USD/JPY	110.43	+0.21	-0.84
은	17.914	-1.94	-2.61	GBP/USD	1.2906	-0.76	-0.11
알루미늄	1,696.00	-0.41	-1.40	USD/CHF	0.9765	+0.04	-0.77
전기동	5,670.00	-0.26	-1.73	AUD/USD	0.6553	-0.77	-1.83
아연	2,046.00	+0.84	-3.85	USD/CAD	1.3316	+0.28	+0.72
옥수수	374.50	-0.53	-2.79	USD/BRL	4.4496	+1.39	+2.81
밀	535.75	-0.23	-4.76	USD/CNH	7.022	-0.05	+0.13
대두	892.00	+0.42	-1.49	USD/KRW	1216.90	+0.55	+2.32
커피	110.65	+1.98	+1.51	USD/KRW NDF1M	1212.10	-0.30	+1.6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334	-1.84	-23.24	스페인	0.247	+3.60	-2.10
한국	1.405	-3.50	-15.00	포르투갈	0.270	+3.70	0.00
일본	-0.086	+1.80	-3.90	그리스	1.138	+9.00	+18.30
독일	-0.505	+0.70	-8.70	이탈리아	0.991	+0.50	+4.00